

---

# 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요소와 문항 분석

이도영 ·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1. 들어가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언어 능력일 것이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가 힘들다. 또한 인간은 사고의 대부분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은 사고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처럼 언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sup>1)</sup>에서도 국어 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 능력은 공직, 의·치학, 법학 등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다. 국어 능력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다. 이처럼 국어 능력이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고루

---

1) PSAT(공직 적격성 평가), MEET/DEET(의·치학교육입문검사), LEET(법학교육입문검사), 공무원 시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어 능력의 향상은 모든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국립국어원·한국언어문화연구원, 2008:3)

다행히도 현재 우리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두 개 있다. KBS가 주관하는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이 그것이다. 이 두 시험은 그 나름대로의 시행 원칙과 출제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두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시험의 전체 평가 틀을 비교·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출제된 문항들 중 어떤 문항이 우수하고 어떤 문항이 우수하지 않은지 문항 분석을 통해 그 옥석을 가릴 것이다. 이는 두 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문항을 구성해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타당하면서도 신뢰 있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2. 전체 문항 구성 분석

여기서는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문항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시험이 국어 능력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국어 능력 중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1. KBS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영역과 내용

KBS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영역은 크게 '문법 능력, 이해 능력, 표현 능력, 창안 능력, 국어 문화 능력'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법 능력은 '어휘, 어법'으로, 이해 능력은 '듣기, 읽기'로, 표현 능력은 '쓰기, 말하기'로 다시 세분화된다. 창안 능력은 창의적 언어 능력을 의미

하며, 국어 문화 능력은 ‘국어 교과외의 교양적 지식’을 뜻한다. 각 영역의 평가 내용과 문항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영역		내용	문항 수
문법 능력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의 이해와 사용(의미, 의미 관계)</li> <li>어휘 용법의 이해와 사용(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li> <li>한자어의 이해와 사용</li> <li>관용 표현(고사성어, 속담 등)의 이해와 사용</li> </ul>	15
	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법 현상의 이해</li> <li>어문 규범의 이해와 적용</li> <li>적절한 표현 및 문법성 판단</li> </ul>	15
이해 능력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적 이해</li> <li>추론적 이해</li> <li>종합적 이해</li> <li>비판적 이해</li> </ul>	10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적 이해</li> <li>추론적 이해</li> <li>종합적 이해</li> <li>비판적 이해</li> </ul>	30
표현 능력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의 수집과 활용</li> <li>개요의 작성과 수정</li> <li>논지의 전개(표현하기)</li> <li>고쳐쓰기</li> </ul>	5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의 선정과 조직</li> <li>효과적인 말하기 전략의 이해</li> <li>사회·문화적인 맥락의 이해</li> </ul>	5
창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의 창의적 수용 및 생성</li> <li>구조의 창의적 수용 및 생성</li> <li>표현의 창의적 수용 및 생성</li> <li>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li> <li>추상 관계의 창안</li> </ul>	10
국어 문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관련 교양적 지식</li> <li>문화 관련 교양적 지식</li> <li>언어 및 생활 문화의 이해</li> </ul>	10

〈표 1〉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영역과 내용 및 문항 수

2) '<http://www.klt.or.kr/test>'와 'KBS 한국방송(2008b)'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KBS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출제 영역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서는 KBS의 내용 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행동 영역은 평가 내용으로 그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는 뒤에 후술할 '국어능력인증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국어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기초가 되는 문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지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사실 창안 능력은 그 평가 내용을 보면 표현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목표로 내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향이기도 하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판단된다.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만 있다면 창안 능력 영역은 그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현 능력 영역의 하위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식 중심의 국어문화능력을 설정한 것도 독특하다. 이 영역은 기존의 국어 시험에서 배제되어 온 국어, 문학과 관련된 교양 상식 및 국어 문화를 평가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항을 보면, 국어 관련 교양적 지식은 문법 능력과 중복 가능성이 있고, 언어 및 생활 문화의 이해도 다른 영역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학 관련 교양 상식은 타 영역과 겹치지 않는다. 국어 문화 능력 역시 영역 설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의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수는 총 100문항이다. 각 영역별 문항 수를 통해 볼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이해 능력(40문항)이고, 그 다음으로는 문법 능력(30문항)이다. 나머지 영역은 모두 10문항씩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읽기(30문항)가 제일 문항 수가 많고, 그 다음은 어휘(15문항)와 어법(15문항)이다. 쓰기와 말하기는 각각 5문항으로 가장 적다. 선다형 시험의 성격상 읽기를 중심으로 한 이해 영역이 중시되고 표현 영역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문법 영역은 학교의 국어 시험을 비롯한 다른 국어 시험에 비해 볼 때 비중이 큰 편이다. 종합해 보면, KBS 한국어능력 시험은 어휘, 어법 등의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어 이해 능력을 중시

한다고 할 수 있다.

## 2.2. 한국어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의 평가 영역과 내용은 큰 틀에서는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각각의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국어능력인증시험은 평가 영역을 크게 ‘언어 기초 영역’, ‘언어 기능 영역’, ‘사고 영역’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언어 기초 영역은 다시 ‘어휘’와 ‘어문 규정’ 영역으로, 언어 기능 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사고 영역은 ‘이해’, ‘논리’, ‘비판’, ‘추론’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각 영역의 평가 내용과 문항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 수
언어 기초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의 사전적 의미</li> <li>● 어휘의 문맥적 의미</li> <li>● 어휘 간의 의미 관계</li> <li>● 단어의 결합 제약 및 용법</li> <li>● 관용어구, 속담</li> <li>● 한자 성어를 포함한 한자 및 한자어</li> <li>● 기타: 외래어 및 순화어, 신조어</li> </ul>	15
	어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법</li> <li>● 한글 맞춤법</li> <li>● 표준어 규정</li> <li>● 외래어 표기법</li> <li>● 로마자 표기법</li> </ul>	10
언어 기능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확인[듣는 중 단계]</li> <li>● 내용의 평가 및 추론[들은 후 단계]</li> <li>● 표현 방식의 이해[듣는 중 단계]</li> </ul>	15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읽기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li> <li>● 필요 시간으로 산정된 시간 내에 주어진 지문 정확하게 이해하기</li> <li>●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에 맞게 내용 재구성하기</li> <li>● 다양한 장르의 읽기 자료를 그 특성에 부합되도록 이해하기</li> </ul>	40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기 단계</li> <li>● 내용 생성하기</li> <li>● 내용 조직하기</li> <li>● 고쳐쓰기</li> </ul>	10

3) 이하의 내용은 한국어언어문화연구원(2006)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사고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정보의 이해</li> <li>● 핵심 정보의 이해</li> <li>● 정보의 기능과 효과 이해</li> <li>● 필자의 태도, 관점, 의도 이해</li> </ul>	10~20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관계 파악</li> <li>● 표현 방식의 파악</li> <li>● 글의 구조 파악</li> <li>● 오류 파악</li> </ul>	10~20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추리</li> <li>● 결론과 전제의 추리</li> <li>● 상황의 추리</li> </ul>	10~20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성</li> <li>● 적절성</li> <li>● 타당성</li> </ul>	10~20

〈표 2〉 한국어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의 평가 영역과 내용 및 문항 수

국어능력인증시험이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말하기, 창안 능력, 국어 문화 능력을 위한 영역이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안 능력과 국어 문화 능력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KBS 한국어능력시험만의 독특함이지 국어 능력 평가에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영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이들 영역이 빠져 있다고 해서 영역 설정이 미흡하다고는 볼 수 없다. 말하기 영역의 평가 역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KBS 한국어능력시험에 나오는 말하기 영역의 평가 문항도 간접적인 평가이므로 실질적인 말하기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한다고는 장담 못 한다. 실제로 KBS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말하기능력시험을 별도로 치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어능력인증시험의 평가 영역은 KBS 한국어능력시험보다 단순하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이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다른 또 하나는 사고 영역을 따로 설정한 것이다. KBS 한국어능력시험도 사고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독립적인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국어능력인증시험도 사고 영역의 평가 내용을 주로 언어 기능 영역과 결합하여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영역 독립의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사고력을 강조하는 취지는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의 총 문항 수는 90문항이다. 이 중, 읽기가 40문항으

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듣기 15문항까지 포함하면, 이해 능력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어휘와 어문 규정의 비중은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대동소이하다. 종합하면, 국어능력인증시험도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언어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어 이해 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해 능력의 비중은 KBS 한국어능력시험보다 높다.

### 3. 우수한 문항이란?

어떠한 문항이 우수한 문항인지를 하나의 잣대로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준 중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 난이도 등이 있다. 타당도란 평가 문항이 원래 평가하고자 하였던 것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타당도에 관한 질문은 '이 평가 문항이 무엇을 재고 있는가?'로 표현될 수 있다.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준거가 필요하다. 준거란 '무엇에 비추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에서 기본 틀의 역할을 한다. 위의 두 시험에서는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이 이러한 준거의 역할을 한다. 신뢰도는 평가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평가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같은 평가 대상에 대해 2번 측정해서 얻은 2개의 측정치 사이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느냐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객관도란 일종의 채점자 신뢰도이다. 선다형 시험은 누가 채점하든지 그 결과가 변하지 않으므로 객관도가 높지만,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다. 변별도란 평가 문항이 수험생들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변별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의 수험생과 낮은 점수의 수험생을 잘 구분하게 된다. 또한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문항이 어려우면 높은 점수의 수험생들을 잘 변별할 수 있지만, 낮은 점수의 수험생들은 변별할 수 없게 된다. 추측

해서 답을 고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항이 쉬우면, 높은 점수의 수험생들을 잘 변별할 수 없다. 그 문항을 거의 다 맞추기 때문이다. 난이도는 평가 문항의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개는 문항의 정답률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5지 선다형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20% 미만이면 추측해서 맞출 확률보다 낮으므로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규모 집단을 평가 대상으로 한 선다형 평가와 관련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준은 이 중에서도 타당도와 변별도, 난이도(정답률)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어떠한 문항이 우수한 문항이고, 어떠한 문항이 우수하지 않은 문항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3.1. 타당도가 높은 문항

타당도가 높은 문항은 <표 1>과 <표 2>에 제시된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타당도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타당도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당도는 '무엇에 비추어 높다, 낮다, 적절하다' 등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다음의 평가 문항은 비판적 읽기 능력을 비교적 잘 재고 있어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다음 글의 요지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인들은 아무 데서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보통 때 조용해 보이던 아주머니들이 유원지에서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마구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놀랐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국인들의 이런 놀이 문화를 완성시킨 게 '라디오 노래방'과 '관광버스 춤'이다. 라디오 노래방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간 웃긴 게 아니다. 세상에 전화기 붙들고 노래할 수 있는 민족이 또 있을까? 우리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자연스럽게까지 하다. 이런 한국인들의 신명이 '역기

스'로 뭉쳐 있는 게 바로 '관광버스 춤'이다. 그 좁은 통로를 요리조리 오가며 추는 그 춤은 가히 무형 문화재감이다. 외국인들은 흔들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경악하여 말을 잇는다. 그 춤의 특징은 어깨를 들썩거리는 것이다. 우리 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는 '흥'이 있다. 우리의 무용가들에 따르면 이 흥은 어깨를 들썩거리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손을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게 되는데, 관광버스 춤은 버스의 통로가 좁으니 손은 내릴 수밖에 없고 다만 아래위로 흔들면서 어깨만 들썩댄다. 이게 관광버스 춤의 전모이다. 우리 한국인들의 놀이 문화가 얼마나 화끈한지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놀이 문화에는 곳곳에서 신명과 신들린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 ① 무형 문화재의 선정 기준을 국민들의 기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가?
- ② '관광버스 춤'은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로서 규제되어야 할 행위가 아닌가?
- ③ 화끈하고 신들린 듯 노는 모습은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④ 한국의 놀이 문화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동양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 ⑤ '라디오 노래방'이 인기를 끄는 것은 정보 격차로 인해 첨단 매체에 소외된 계층이 아직 많기 때문이 아닌가?

〈제17회 국어능력인증시험 43번 문항, 읽기〉

이 문항은 제시문의 중심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반론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려면 수험생은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찾거나 재구성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답지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 단계의 글 읽기와 사고를 요구하면서 비판적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정답지와 경쟁할 만한 오답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문항은 문항 자체로는 하등 결함이 없지만, 문항의 완성도에 비해 타당도는 낮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문항이 말하기 영역 중에서 말할 내용 선정과 조직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 설계로는 말할 내용의 선정·조직과 관련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만약 이 문항이 지시적 의미의 이해와 그 효과를 평가하는 문항이었다면 타당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 〈보기〉는 토론 대화의 일부이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김 교수가 문제로 지적한 ㉠에 해당하는 것은?

박 의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하천 공사 과정에서 강의 하류가 오염되면서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중에 한 어린아이이고 이 사람은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눈물이 절로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지속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 잠깐만요, 박 의원님. 지금 우리는 명분과 정당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①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사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분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③ 하나의 사례만을 근거로 하여 전체 사안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④ 쟁점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11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47번 문항, 말하기〉

### 3.2. 변별도가 높은 문항

변별도와 관련해서 안 좋은 문항 중 하나는 문제는 매우 어렵지만 변별도는 낮은 경우이다. 문제가 어려우면 높은 수준의 수험생들과 낮은 수준의 수험생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변별도가 낮으면 이 둘을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고 낮은 수준의 수험생들은 잘 맞추었을 수도 있다. 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추측해서 맞추었을 수도 있다. 다음의 문항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시를 듣고 푸는 문항이어서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 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마음은 연약하나 꺾질은 단단하다  
내 꺾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달은 차돌같이 차다  
나의 길은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손에 주전자를 들고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가 가야 할 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다

죄 없는 소년이다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밟고 간다  
아마 아침 이슬인 줄 알았나 보다

- 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 ②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한 연민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 ④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추구
- ⑤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는 의지

〈제11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10번 문항, 듣기〉

〈문항 분석〉

답지 반응을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
		9.9%	28.6%	11.4%	14.8%	35.5%
난이도	3.595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변별도	0.308	매우 낮다	낮다	적절하다	높다	매우 높다

위의 문항과는 달리 다음 문항은 변별도 측면에서 하나의 전범을 보인다 하겠다. 3문항으로 구성된 읽기 세트 문제인데, 난이도 측면에서 '상, 중, 하'가 골고루 한 문항씩 들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변별도를 확보하고 있다. 말하자면, '높은 수준의 수험생, 중간 수준의 수험생, 낮은 수준의 수험생'을 잘 구별하고 있는 문항 세트인 것이다. 변별도가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항을 구성하면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높아지게 된다.

[70-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협상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요구에 집착하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목이 말라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당신 가게에 와서 “㉠콜라 한 병 주세요.”라고 했다고 치자. 콜라를 달라는 게 그의 요구다. 그런데 마침 당신 가게에는 콜라가 떨어지고 사이다밖에 없다. 당신이 만일 그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콜라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협상(장사)은 거기서 끝나 버린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가 아닌 욕구가 초점을 맞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콜라를 달라는 것은 손님의 요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욕구는 무엇일까? 아마도 목이 말라서 시원한 청량음료 하나를 마시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의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면 “콜라 없습니

다.”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시원한 ㉠사이다는 있습니다.”라며 상대의 욕구를 자극할 것이다. 아마도 그는 사이다로는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협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한다.’라는 점이다. 즉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는 욕구의 대리인일 뿐이고, 요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욕구’라는 뜻이다. 표면적인 요구 뒤에 숨은 욕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상의 시작이다.

한편, 협상학에서는 양측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이디어를 ‘창의적 대안’이라 부른다. 좋은 협상가란 상대의 요구가 아닌 욕구에 초점을 맞춘 후 나와 상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모두들 결렬될 것이라 말했던 ‘캠프데이비드 협상(1978년 중동 평화협상)’이 성공한 이유도 바로 ‘창의적 대안’ 덕분이었다. 1967년 ‘6일 전쟁’ 이후 시나이 반도를 빼앗긴 이집트는 ‘이 땅을 100% 돌려주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반면 시나이 반도를 빼앗았던 이스라엘은 ‘돌려주더라도 일부만 하겠다.’라며 맞섰다. 당시 이 협상을 중재했던 미국의 밴스 국무장관은 노련한 협상가답게 양측의 요구가 아닌 욕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이집트의 욕구는 빼앗긴 땅을 되찾고 싶은 ‘명예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욕구는 국경이 인접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국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를 두고 싶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밴스 장관이 내놓은 창의적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시나이 반도 땅은 이집트에 100% 돌려준다. 단 반환된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비무장화한다.’ 결국 국토 수복이라는 이집트의 명예와 안전 보장이라는 이스라엘의 실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창의적 대안 덕분에 캠프데이비드 협상은 ‘세기에서 가장 성공한 협상’이란 찬사를 받게 됐다.

(나) 남편: 이번 주에 회사에 일이 많았어. 이번 주는 그냥 집에 있지.

내내: 나도 집안일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지쳤어. 그러니까 주말에는 나가서 영화도 보고 외식했으면 좋겠어.

남편: 밖에 나가는 것도 일이야. 난 집에 있을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아내: 난 주말마저 일하긴 싫어. 왜 당신은 늘 당신 맘대로 해?

〈제12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70-72번 문항, 읽기〉

70. [가] 글의 ㉠단락에서 '㉡ 콜라 : ㉢ 사이다'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콜라

㉢ 사이다

- |                                  |   |
|----------------------------------|---|
| ① '명예 회복'                        | '자국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  |
| ② '이 땅을 100% 돌려주지 않으면<br>협상은 없다' | '명예 회복'   |
| ③ '이 땅을 100% 돌려주지 않으면<br>협상은 없다' | '돌려주더라도 일부만 하겠다.'   |
| ④ '자국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               | '시나이 반도 땅은 이집트에 100%<br>돌려준다. 단 반환된 시나이 반도<br>에 이집트 군이 주둔하지 못하도<br>록 비무장화한다.' |
| ⑤ '돌려주더라도 일부만 하겠다.'              | '시나이 반도 땅은 이집트에 100%<br>돌려준다. 단 반환된 시나이 반도<br>에 이집트 군이 주둔하지 못하도<br>록 비무장화한다.' |

〈문항 분석〉

답지 반응률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
		7.3%	31.0%	7.8%	19.2%	34.8%
난이도	0.412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변별도	1.315	매우 낮다	낮다	적절하다	높다	매우 높다

71. [가] 글을 토대로 할 때, [나] 대화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의 요구는 '주말에는 집에 있자'이다.
- ② 남편의 요구와 아내의 요구는 충돌하고 있다.
- ③ 남편의 욕구와 아내의 욕구는 서로 일치한다.
- ④ 아내와 달리, 남편의 요구와 욕구는 일치한다.
- ⑤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의 욕구 파악에 무심하다.

<문항 분석>

답지 반응률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
		3.4%	2.4%	36.2%	51.4%	6.5%
난이도	1.469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변별도	1.156	매우 낮다	낮다	적절하다	높다	매우 높다

72. [나] 상황에 대한 '창의적 대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은 집에서 쉬고 아내는 영화 보러 나간다.
- ② 이번 주말은 집에 있고 다음 주말은 외출한다.
- ③ 둘 다 집에서 있으면서 남편이 밥하고 청소한다.
- ④ 집에서 DVD로 영화를 보고 밥을 주문해서 먹는다.
- ⑤ 함께 외출해 같이 식사한 후 남편은 먼저 돌아온다.

<문항 분석>

답지 반응률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
		0.8%	3.5%	6.9%	87.8%	1.0%
난이도	-1.402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변별도	1.216	매우 낮다	낮다	적절하다	높다	매우 높다

## 4. 나오며

우수한 문항은 기본적으로 평가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앞에서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 좋은 문항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험생들의 능력을 변별하는 것이 평가의 주 목적일 때에만 그렇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과 언어문화재단의 국어능력인증시험에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별도가 우수한 문항을 선별하는 조건이 된 것이다. 하지만 타당도는 어떤 평가이든지 꼭 지켜야 할 조건이다.

지면이 짧은 관계로 어떠한 문항이 우수한 문항인지 속속들이 밝히지 못했지만, 문항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문항은 수험생들의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문항 자체가 참신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수한 문항은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안 된다.

좋은 평가는 좋은 교육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KBS 한국어 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한국언어문화연구원(2008), 2007·2008 국어능력인증시험을 기준으로 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추이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8-01-70.

한국언어문화연구원(2006), 국어능력인증시험 길라잡이, 박문각.

KBS 한국방송(2008a), 제11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 연구, KBS 한국 방송.

KBS 한국방송(2008b), 제12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 연구, KBS 한국방송.